

# 사랑사랑

제79호 (2001/7/23)

\*\*\*\*\*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인권단체들, “국가인권위 우리 손으로”

##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문]

**정부는 청송 제1보호감호소 교도관들의 박영두 타살사건 및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지난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4년 당시 청송 제1감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영두가 여러 교도관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의 전모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1980년 8월 경상남도 충무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되어 '삼청교육대'에 입대하게 된 박영두는 일방적인 보호감호처분에 항의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하다가 군법회의에서 10년형을 선고받고 청송 제1감호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청송 제1감호소에서 계속 보호감호제도 철폐와 재소자 인권 보장을 요구하다가 교도관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결국 7-8명의 교도관으로부터 처참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하였다.

우리 인권운동가들은 이 공권력에 의한 잔인무도한 살인사건의 진상을 접하면서 17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캐내지 못했던 우리의 인권운동을 부끄럽게 돌아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참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 사항들을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한다.

### 1. 우리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가해자들에 대하여 파면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박영두를 직접 타살한 교도관들은 이잡술, 박수호, 김의식, 김명겸 등 7-8명이다. 과테말라로 이민 가버린 이잡술, 사망한 박수호를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근무하는 김의식과 청송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김명겸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법무부가 파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울러 우리는 법무부가 성실한 자체조사를 통해 이 살인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간여한 모든 공무원의 이름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2. 우리는 정부가 이 범죄의 은폐에 가담했던 모든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살인사건이 17년 동안이나 어둠에 묻혀 있었던 이유는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무부에 대해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을 비롯한 교도관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소속 최복성 검사를 비롯한 관련 검사들에 의한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밝히고 그 각각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3.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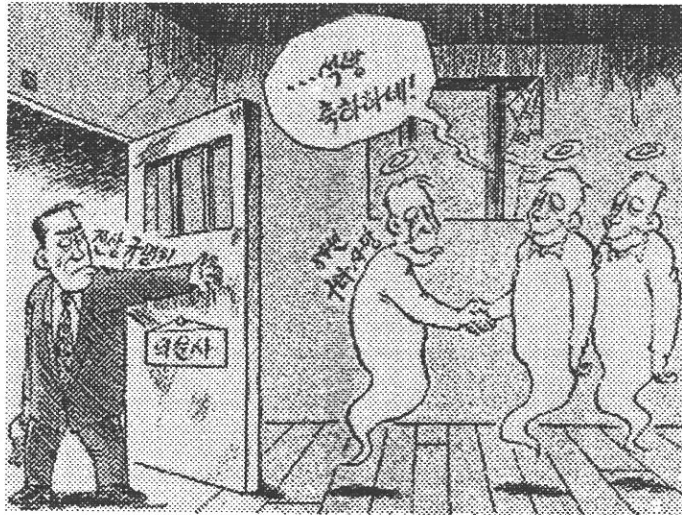
가해자 김의식, 김명겸 등이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음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현실을 직시하여 이들 및 살인과 은폐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가 하루 속히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 부적용조약' (1968)에 가입할 것을 촉구한다.

**4.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고 청송감호소를 폐쇄하라**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는 5·18 광주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 그 폭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반인권적 제도였다. 20년에 이르는 청송 교도소 및 감호소의 역사는 범죄자의 교화·사회복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공무원의 폭력이 난무하는 반인권범죄의 역사 그 자체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 악한 사회에서 결국 우리 모두의 악과 비겁함이 생산해내는 '범죄자'를 영원히 매장해버리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보호감호제도의 철폐작업에 착수하라.

2001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한국일보 만평 6월 26일자

[사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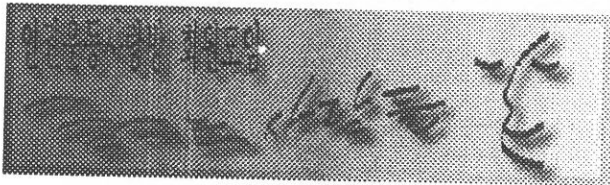
## 꿈꾸는사람들 1주년 모임 후기

박신혜(꿈꾸는사람들 회원)

사실 나는 처음 1주년 행사를 이야기할 때부터 몹시 어색했다. 우리가 벌써 1년이 되었다고? 그래.. 작년 여름 더운 사랑방 5층에서 끄끙하면서 시작한 것이 벌써 이렇게 되었구나. 1년이라고? 아직도 나는 꿈모임이 1년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단체와 친해지는데 성공했다. 후원회원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단체와 친해지는 일은... 사실 그다지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우리는 몇몇의 개인적인 친분과 후원회원이라는 것을 앞세워 은근슬쩍 사랑방 5층을 차지했고 이런 저런 사랑방의 일들에 조금씩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 5층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간의 활동들을 평가하고 1주년 모임을 준비했다. 간단히 우리가 진행한 모임 평가를 하고 서준식 선생님의 사랑방의 인권운동 방향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사랑방 식구들에게 저녁을 대접하기로 했다. 메뉴는 김밥, 잡채, 부침개, 냉국, 샐러드, 수박, 떡. 김밥을 맡아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우리로서는 정말 대단한 결심이었다.



우리의 에세이가 든 책을 손에 잡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예정된 순서대로 행사는 진행되었고 야외에서 하기에는 햇빛이 너무 강했지만 서준식 선생님의

강의가 끝나고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다. 정말 맛있는 저녁식사였다. 어설픈 솜씨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무모했지만 음식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새 해는 저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걱정만 비도 오지 않았다. 즉흥적으로 진행된 뒤풀이에서는 참석하신 모두가 꿈모임에 대한 느낌들을 이야기했고 멋진 노래들도 함께 불렀다. 더할 나위없이... 라는 표현이 아주 걸맞는 날이었다.

살아가면서 뭔가 잘 풀린다는 느낌은 다른 표현으로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잘 풀린만큼 그 시간도 짧게 느껴진 것일 테니. 1년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사랑방에 맞는 후원 활동들을 실험해왔고 매주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꿈모임 2주년 행사 때는 또 무슨 자랑거리가 생길런지.

[사람이야기]

93년 사랑방과 첫 인연이...<sup>1)</sup>

김경희 · 전대진<sup>2)</sup> 부부

방문 당일 급하게 약속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희, 전대진 부부는 우리를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이제 막 7개월된 둘째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6살난 첫째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큰애는 우리를 신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희선 : 인권운동사랑방과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게 됐는지요?
- 대진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위해 공대위를 꾸려 함께 준비하면서 사랑방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군에 가게 됐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사랑방에서 자원활동을 했구요. 제대하고 나서 활동을 계속 할 지 취업을 할 지 고민하다가 먼저 한 10년쯤 사회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취업했습니다. 후원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 희선 : 결혼은 언제? 사랑방에서 만나신 건가요?
- 대진 : 결혼은 96년, 제대하고 나서 했구요, 사랑방에서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여기서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 다음으로 미웠습니다. 김경희씨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1995년도에 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자원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 경희 : 하하.. 자원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가서 배웠지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사랑방에 참여하길 권했거든요.
- 대진 : 요즘은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어요.
- 경희 : 하하.. 활동은 무슨.. 회비만 내고 있죠.
- 희선 : 전대진씨는 요즘 어떤 일을 하시나요?
- 대진 : 이솔넷(esolnet)이라고 하는 벤처의 이사로 있습니다.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정도 됐구요. 예전엔 노동자의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경영자의 입장에 있지요. 하하.. 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도 그런 고민을 좀 했지요.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추구하게 되는 효율성과 인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해야 하는데 그게 참 애매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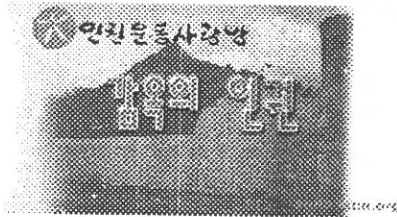
김경희, 전대진 부부는 후원금을 계속 지로로 내신다고 합니다. 자동이체 하는 대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달 그렇게라도 사랑방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소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사람사랑>에 기고해보시는 건 어떠한 제안도 드리고, 전체 후원회원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발나발>에도 꼭 한 번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우리는 자리를 뒀습니다.

1) 만난 사람 : 나이희선, 박신혜, 이종현(이상 꿈꾸는 사람들 회원) / 정리 : 나이희선  
 2)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사를 쓰신 분이 전대진씨입니다

# 사/업/보/고

(2001년 6월 넷째 주- 7월 셋째 주)

## 감옥의 인권



● 사랑방의 감옥인권팀 홈페이지(간헐자들의 벗, <http://antiprison.org>)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8월에 정식으로 오픈되는 홈페이지는 막바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홈페이지와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관례와 법령, 교정시설 관련 자료 등 홈페이지 자료실은 아마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감옥'관련 자료실이 될

듯 싶습니다. 또 재소자 인권과 관련한 각종 기사가 정리되어 있고, 교정시설 내 인권문제와 관련한 상담도 접수중입니다.

## 자유권위원회

● 전자건강카드 도입 반대운동이 잠시 소강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유보된 데다, 보건복지부쪽도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자건강카드를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 이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가을이 되면 전자건강카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인권간행물

###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엮음, 가격 : 8천원)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국가보안법의 명줄을 끊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서도 '서울 민주노동자회', '단국대활동가조직' 사건 등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규정된 한총련 대학생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위 보고서는 1998년, 1999년에 이어 세번째 발간되는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보고서입니다. △국가보안법 사건일지 △한총련 이적규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의 쟁점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 그러나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책 서문에서)

● 구입문의 :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 02-741-5363

## 사회권위원회

●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 연대회의' 참가단체들은 지난 6월 27일 정부쪽 관련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석한 단체는 민중의료연합, 민변, 사회진보연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한국도시연구소였습니다.

사랑방에선 서준식 대표와 상임활동가 이주영씨가 참석했습니다. 정부 쪽에선 청와대 신태권 시민사회비서관, 외교통상부 박경서 인권대사를 비롯해,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통계청,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정부 쪽에선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계획은 고사하고 권고가 나오게 된 맥락과 의미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권고사항들의 국내 이행을 위한 업무 분담을 부처별로 나눠놓은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민간단체들이 권고가 나온 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관련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성명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사회권연대회의'는 정부가 국제인권의 시각에서 우리의 낙후한 사회권 상황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지금처럼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파업을 범죄시하며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 수배하는 것은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사회권연대회의는 앞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약 6개월에 한번 씩 갖는데 합의하고, 다음 회의를 11월 28일로 정했습니다.

## 인권단체연대회의 참여

● 오는 11월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꾸려졌습니다. 사랑방을 비롯해 33개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가 7월 19일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방에선 서준식 대표와 상임활동가 이광길(자유권위원회 소속)씨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인권단체연대회의' 구성 작업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에 적극 개입하며 △국가인권위법 시행령 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국순회교육과 해설서 제작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한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대응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 8페이지 발족 선언문 참조)

## 인권정보자료실

● 인권정보자료실은 자료실에 꼭 있어야 할 자료(단행본, 논문)를 구입하기 위한 목록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인권정보자료실이긴 하지만 간혹 저희들이 놓치고 있던 자료들을 이번에 목록을 정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통해 검색한 단행본, 논문 등을 중심으로 목록작업은 마무리했고 인권운동연구소에서 기본권 세미나 자료로 활용했던 자료와 참고문헌 목록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수집한 목록은 상임활동가 회람을 거쳐 필요한 자료에 한해 구입할 것입니다.

# 사/랑/방/소/식

## ■ 사회봉사 · 실습 진행

요즘 사랑방 사무국은 대학생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이화여대생 3명이 7주간의 사회봉사를 시작했고, 평택대생 등 3명의 실습생이 여름방학 동안 사랑방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 꿈꾸는사람들 1주년, 에세이집 발간

지난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꾸리고 사랑방 후원 및 자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꿈꾸는사람들'이 창립 1주년을 맞아 7월 7일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꿈꾸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 1년간 '인권'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왔던 에세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작은 '출판기념회'도 가졌습니다.

## ■ 상임활동가 휴가시작, 수련회 예정

7월부터 상임활동가들의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씩의 휴식을 거쳐 원기를 회복한 뒤 하반기에 더욱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볼 것입니다. 또 상임활동가들은 8월 중순 2박3일간 수련회를 떠납니다.

## ■ 김일숙 씨 상임활동가직 사임

인권영화제와 인권하루소식팀에서 활동해 온 김일숙 씨가 상임활동가직을 사임했습니다. 김일숙씨는 '영상'과 '인권'의 만남을 위한 고민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영상'작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일숙 씨의 건승을 빌어주세요.

## ■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 방문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7월 2일부터 1주일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1990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군부가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태국으로 망명해 활동중인 산 아웅 씨, 버마학생민주전선의 씨니 마힌더 씨 등 모두 4명의 대표단은 방한 기간 동안 사랑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압력을 호소하면서, 국내 사회단체 활동가와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관계자들도 만났으며, 7월 6일에는 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대규모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버마에서는 군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의 싹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단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 후원금납부계좌

(예금주 서준식)



\* 단, 자동이체는 후원자 본인이 직접 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이메일 한통씩 날려주세요 ●

사랑방 후원자들의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마다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가 확인 안된 분들이 많습니다.(홈페이지를 통해 후원등록을 한 분들의 메일주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분들은 사랑방으로 메일 한 통만 날려주세요.



## [창립선언문]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우리 인권단체들은 막중한 책무를 절감한다.

새로운 법과 제도의 탄생은 언제나 그 자체로서 새로운 세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치 흑독한 단련을 거친 후에 날랜 강철이 탄생하듯 새로운 제도가 명시적 목적에 부끄러지지 않은 훌륭한 제도로서 확립되기 위하여 그것은 깨어 있는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와 냉철한 비판 아래 놓여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시와 비판의 임무가 일치적으로 인권단체의 몫임을 분명히 자각한다. 우리는 오로지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이 국가기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제 진지한 감시와 비판의 길로 나서고자 한다.

올바른 국가인권위법을 쟁취하기 위해 3년여 동안 흘렸던 우리의 피와 땀은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의 실체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 버렸다. 현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 단체, 언론도 이를 명시적으로 환영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을 빌어 그것이 진정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시민단체가 환영하는 인권위법"이냐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늘도 여전히 "아니다!"이다. 깊은 실망과 고통의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치고 난 지금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 "아니다!"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질 수밖에 없음을 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현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전시물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치명적 결함을 가진 함람미달의 법률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끝내 이를 외면하지 못하는 것은 한 장의 청원서를 쓰기 위하여 피 마르는 박해를 받아야 하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현실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을 찾을 길 없는 인권 피해자들에게 감히 "국가인권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할 감심장이 우리에게 없는 까닭이다.

힘없는 국민의 크나큰 희망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그것은 결코 '인권'의 간판을 내건 사기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를 창립하는 우리 인권단체들은 우리의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다. 우선 제도의 결함을 인권의식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인권위원의 선임은 국가인권위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는 현재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위원 선정과정이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이를 촉구하기 위한 과감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국가인권위법 요소 요소에 공허하게 뚫린 구멍을 메워주는 효과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에 최대노력을 쏟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인권위법 입법과정에서 발휘했던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구시대의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끈질기고도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오늘 우리의 인권상황은 참담하다. 공권력의 횡포 앞에 끝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극성스러운 탄압과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완벽하게 봉쇄하려는 공권력의 무모한 횡포는 우리 시대의 인권상황을 웅변하는 자화상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답답한 현실이 우리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의해 박살날 것을 희망한다. 그런 쓸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를 내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한다. 그런 쓸모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꺾어보지 못한 실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다. 국가인권위와 인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엄숙한 명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도 민주적인 검증과정을 통해 선임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정하라.

2001년 7월 19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



이동수

\*꼰따라 '짹짹' 따지며 낱각의 준말어에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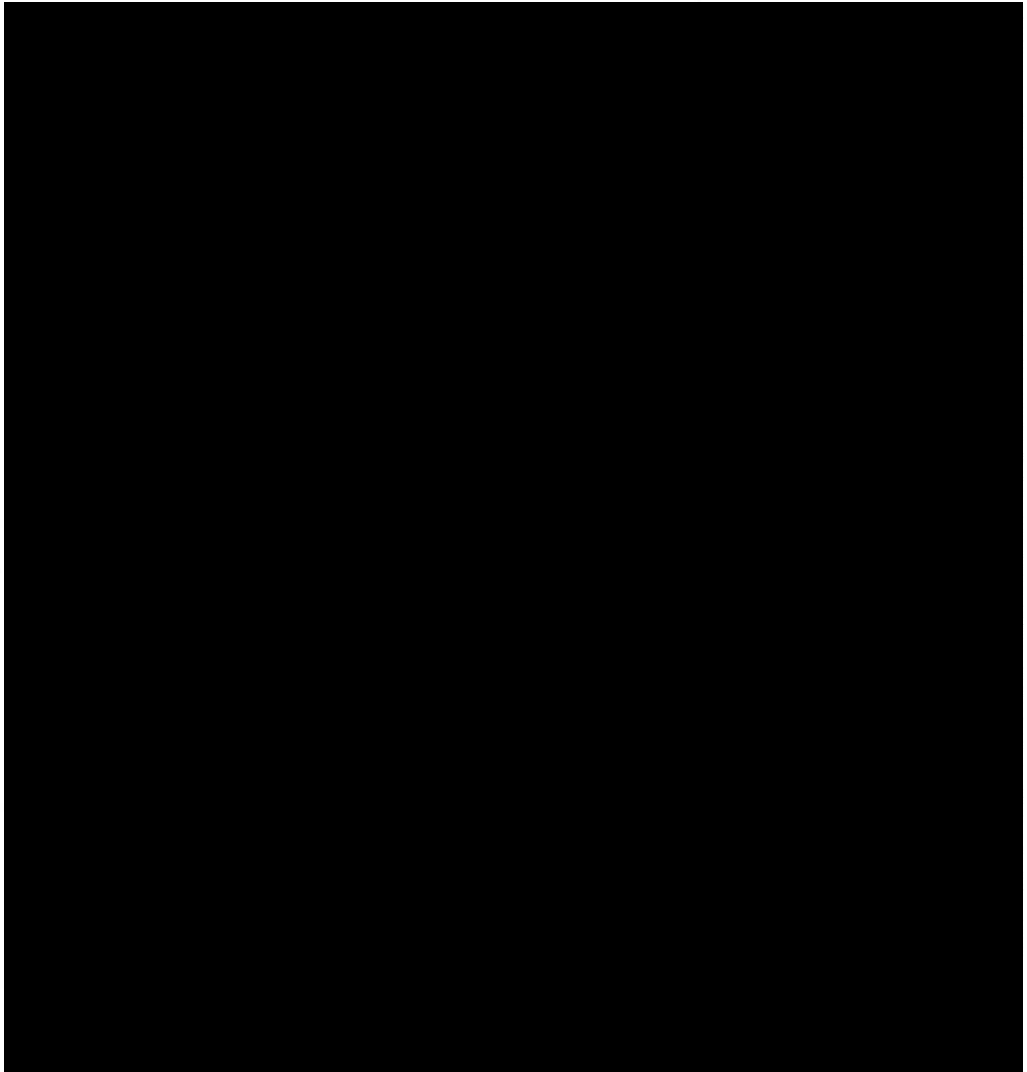
## 2001년 6월 회계 보고

(2001년 6월 17일 - 7월 16일)

이월금 :		188,146원	
수입		지출	
<p><b>사업수익</b>                    2,721,650원</p> <p>-하루소식                    2,405,820원</p> <p>    구독료(123명)            2,200,030</p> <p>    기사배급                 205,790</p> <p>-간행물 판매                315,830원</p> <p>    2000국보법보고서        10권</p> <p>    인권교육길잡이         7권</p> <p>    하루소식 합본호         4권</p> <p>    한국감옥의 현실         2권</p> <p>    인간담게 살권리         2권</p> <p>    국제인권조약집 등      각 1권씩</p> <p><b>후원금</b>                    4,940,170원</p> <p>-정기후원                    4,740,250원</p> <p>-기타후원                    199,920원</p> <p><b>상임활동가 기여금</b>      860,000원</p> <p><b>은행이자</b>                 8,418원</p>	<p><b>사업비</b>                    708,200원</p> <p>-하루소식 우편발송        270,630원</p> <p>-자료구입비                5,000원</p> <p>-감옥인권팀                105,870원</p> <p>-자유권위원회             50,000원</p> <p>-사회권위원회             78,880원</p> <p>-사람사랑 제작발송      123,460원</p> <p>-CBS 노조 지지방문        50,000원</p> <p>-세계인종대회 간담회    20,000원</p> <p>-기타                        4,360원</p> <p><b>활동비</b>                    4,900,000원</p> <p><b>사무실유지비</b>            1,017,860원</p> <p><b>통신비</b>                    1,004,530원</p> <p><b>사무비품</b>                 70,000원</p> <p><b>사무국 식비</b>             400,240원</p> <p><b>생활비</b>                    151,370원</p> <p><b>기타(시평필진 선물)</b>    130,000원</p>		
<b>총수입:</b>	8,530,238원	<b>총지출:</b>	8,382,200원
<b>잔액:</b>			336,184원
<b>부채:</b>			700,000원

● 특별사업기금 적립액 : 3,498,670원

<6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거나다 순, 7/16일(지로는 13일) 까지



<2001년 6월 재정 세부내역>

- 구로에 위치한 부림교회 청년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영국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redacted] 님께서 사랑방을 찾아와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redacted] 님은 영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줄곧 사랑방의 활동에 깊은 관심과 도움을 보내주셨습니다.
- 7월엔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제작, 복사기 부품교체, 꿈꾸는 사람들 에세이집 발송, 사무국 수련회 등으로 평소보다 200여만원 정도가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의 사업비 대부분은 전자건강카드 반대운동, 여성노동법 개악 반대운동 등 각종 연대사업에 참여한 비용입니다.
- 2001년 상반기 인권하루소식 '인권이야기' 집필을 맡아주셨던 분들에게 「철레전투」 1질씩을 보내드렸습니다.